

KBA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WEEKLY BRIEFING

2022.4.4 – 4.8

VOL.307

CONTENTS

I EU TRADE POLICY

- ▶4.04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 러시아 에너지 고율 관세 등 제재 강화 요구
- ▶4.04 러시아, 해바라기 오일 등 일부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도입
- ▶4.04 러시아, 비우호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금지 검토
- ▶4.04 EU,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자재 시장 활성화 위한 '건축물 규정' 개정
- ▶4.05 EU, 러시아군 잔악행위에 석탄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 제안
- ▶4.05 EU 재무장관회의, 최소법인세 역내 이행 관련 이견 조율 주목
- ▶4.05 [보고서]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 ▶4.06 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및 소비자보호 위한 일련의 지침 개정안 제안
- ▶4.06 EU 재무장관이사회, 폴란드 거부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 합의 실패
- ▶4.07 영국, 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러시아 화석 에너지 원자력으로 대체
- ▶4.07 EU, 향후 2년간 곡물 수출 30% 확대...글로벌 식량안보 완화 기대
- ▶4.08 유럽의회,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 ▶4.08 프랑스, 역내 농산물 생산 목표 설정 제안
- ▶4.08 EU 집행위, 벌 등 수분 매개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규제 추진

II EU 환경규제 뉴스 -KIST EUROPE 제공

- ▶4.08 미세플라스틱, 노후화 될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 흡착
- ▶4.08 유럽집행위원회, REACH 정보요구사항 개정안 채택

①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 러시아 에너지 고율 관세 등 제재 강화 요구

- EU와 독일 등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확산

- 지난 주 열린 EU 정상회의는 당분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대신 기존 제재의 효과를 점검하고, 제재조치 우회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합의

-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 등은 최근 러시아군 철수 지역에서 드러난 반인도적 행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제재를 강력 요구, 회원국간 합의 여부가 주목됨

- 폴란드는 전면적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또는 최소한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이 반대함에 따라, EU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4~5월 경 독자적으로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연내 전면 중단할 방침

- 또한, 일부 회원국의 제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 가격경쟁력 저하를 통한 퇴출을 주장

- 에스토니아는 전쟁 발발 이후 EU가 220억 유로의 자금을 에너지 대금 등으로 러시아에 지급,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대금 에스프로 계좌를 개설, 에너지 대금 일부를 해당 계좌에 예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 EU 집행위는 기존 제재 효과 검토와 우회 방지조치를 담은 '이행패키지(compliance package) 및 러시아의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비상 신속 대응조치를 마련 중

- 특히, 제재 우회 방지 조치로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가족에 대한 제재 확대,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 선전용 방송에 대한 제재 확대 등이 검토

② 러시아, 해바라기 오일 등 일부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도입

- 러시아는 4월 1일부터 해바라기씨 및 유채씨 수출을 금지하고, 4월 15일부터 해바라기 오일과 가루에 대해 각각 150만 톤, 70만 톤의 수출 쿼터를 적용할 예정

- 러시아 농업부는 해바라기 오일 및 (오일 추출용) 씨앗의 국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러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국 시장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조치는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발표
-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오일 수출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52%를 차지하고, 유채씨 주요 글로벌 공급처에도 해당

③ 러시아, 비우호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금지 검토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전 대통령)은 1일(금) 비우호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
-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농식품이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강조,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농식품 공급을 중단하고, 우방국에만 루블화 또는 해당 국가 통화를 이용, 합의된 물량을 수출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이유로 부과된 서방 제재에 대응조치로 EU 등에 부과한 일부 농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향후 '적국'의 농식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④ EU,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자재 시장 활성화 위한 '건축물 규정' 개정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리노베이션, 에너지 효율 제고 등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수요 절감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EU는 건축자재 시장 표준화 확대를 추진
- EU 집행위는 건축자재 인증 등에 관한 2011년 건축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CPR) 개정안을 제안, 건축자재 표준화 강화를 통해 건축자재 시장을 활성화하고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다는 방침
- EU 건축산업 에코시스템에 5백만개 기업 및 2,500만 명이 종사하고, 건축자재 시장에만 43만개 기업 및 1만 명이 종사, 총 8천억 유로의 시장을 구성하는 점 등 지적, 표준화 진전 및 건축자재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를 목표
- CPR 개정안은 집행위에 '이행입법'으로 제품 기술표준 요건을 채택 또는 개정할 권한과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관여할 수 없는 이른바 '표준화 영역' 지정 권한을 부여
- 또한, 집행위는 CPR 개정안에 지속가능성 요건 및 환경 표준을 함께 규정한다는 방침이나, 지속가능성 요건과 안전 요건을 동일한 법에 규정하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

● 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 관련 법안 담당 크리스티안 돌스칼 의원은 수년간 지체되어온 건축자재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 앞서 2020년 유럽의회는 EU 444개 건축자재 표준 가운데 지난 CPR 개정 후 채택된 표준이 12개에 불과함 점을 지적, 행정절차 신속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 또한, 유럽의회는 상당수의 표준이 건축자재 사용에 필수적인 요건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향후 안전 위험 및 법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 반면, 일부 건축자재 업체(Knauf Insulation)는 최소 재활용 자재 사용요건, 건축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 고려 등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

- 특히, 상품의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EU의 내재적 탄소배출량 계산 및 보고 표준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⑤ EU, 러시아군 잔악행위에 석탄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 제안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행한 잔악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EU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금지 및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제안

- EU는 기존 제재의 효과 검토 및 우회 방지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러시아군 철수 후 드러난 민간인에 대한 잔악행위가 새로운 제재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일(월)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지칭하며 러시아군 잔악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제재를, 영국도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 러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발표
-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가해지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로 의미가 크나, 석탄보다 수출액이 훨씬 큰 가스는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 이외의 추가 제재조치로는 반도체, 기계류 등과 같은 첨단제품 수출 통제 강화,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 참여 금지,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완전한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 에너지 선박을 제외한 러시아 선박은 EU 항만에 입항이 금지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육송 운송 또한 EU 출입이 금지
-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유 수입금지 등의 추가 제재도 논의 예정임을 밝힘
- 집행위의 추가제재 제안은 6일(수) EU 이사회 상주대사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원유 등 수입금지는 다음 주 예정된 EU 외무장관이사회가 합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

● 한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EU가 지불한 에너지 대금이 러시아 전쟁 자금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에너지 수입금지를 촉구해왔음

-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일(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 제재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독일을 강력하게 비난
- 다음 주 대선을 앞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독일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그동안 자국 경제적 악영향을 이유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독일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관련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독일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4일(월) '현 상황에서 가스 수입을 중단할 수 없지만, 원유와 석탄은 사정이 다르다고 언급, 독일이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에 근접했다는 지적. 다만, 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구동독 지역의 원유 공급망 확충 등 러시아 원유 대체에 수주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

⑥ EU 재무장관회의, 최소법인세 역내 이행 관련 이견 조율 주목

● EU 재무장관회의는 5일(화) 회의를 통해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EU 역내 이행에 관한 일부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

-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는 작년 10월 OECD 주도 국제 세제개편의 이른바 'Pillar 2'로 합의된 것으로 EU 등 합의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
- 폴란드는 15% 최소법인세가 글로벌 대기업 과세 합의(Pillar 1)와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며, 최소법인세 우선 발효에 반대, 에스토니아, 헝가리, 스웨덴 등도 이에 동조
- 최소법인세 도입의 계기가 된 국제적 법인세 인하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온 아일랜드는 당초 강력하게 최소법인세에 반대했으나,
- 일부 12.5% 세율 유지 조건에 EU와 합의, 최소법인세 도입 찬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일랜드의 반대에 의지했던 폴란드 등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지적
- 반면 금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6월 임기 만료시까지 최소법인세 이행 법안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
- 최근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세금을 탈루한 맥킨지 컨설팅을 이용한 것이 대선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점도 프랑스의 최소법인세 강력 추진의 배경이라는 지적

⑦ [보고서]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EU의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이후의 과정은 EU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를 거치게 되며, 그 첫 순서로 EU의회 내 책임보고자(rapporteur)인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 의원의 수정안이 2021년 12월 공개되었다. 차힘 의원의 수정안은 EU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서이자 공식적인 의회-이사회 합의의 출발점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⑧ EU, 석탄 수입금지 등 5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 EU 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금지 등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
- [석탄] 5차 제재안은 첫 번째 에너지 분야 제재로 연간 약 40억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 주목. 다만,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는 추가 검토 방침*
 - * 독일이 이미 올 여름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을 계획한 점에서 석탄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가스는 당장의 대체가 어렵고, 원유의 경우 운송망 등 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이번 제재안에 원유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분석
-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5차 제재조치 공포 3개월 후 적용되며, 기존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와 관련,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 전체 약 989억 유로 가운데 석탄은 약 40억 유로 수준에 불과, 석탄 수입금지의 제재로써 실효성에 회의적 의견이 제기
- [항만 및 육상운송] 운송 분야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EU 상품 수입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 화물트럭의 EU 육로 접근을 금지. 다만, 원유, 가스, 식품, 의약품 등의 운송은 제외
- [첨단상품 수출통제] EU의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LNG 관련 기술, 기타 전자 및 운송 장비 등 연간 총 100억 유로 상당의 EU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
- [금융] 러시아 금융시장 합계 점유율 23%의 VTB 등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해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 접근 차단 제재에 추가적으로, 이들 4개 은행과 모든 거래를 금지
-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목재, 시멘트, 고무, 화학제품, 보드카 등 고가 주류, 캐비어 등 총 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상품을 수입금지 리스트에 추가
- [공공조달, 인적 제재 강화] 모든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올리가르히 및 정치인 등 인적 제재 대상 리스트를 확대

- [원유] 집행위는 원유 에스스로 계정 등 회원국들이 제안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향후 원유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

- 이와 관련, 6일(수) 열릴 EU 상주대사이사회에서 5차 제재안 확정과 함께 원유 수입금지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가능성이 주목됨

9 EU 재무장관이사회, 폴란드 거부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 합의 실패

- EU 재무장관회의는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역내 이행지침(안)에 관한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폴란드의 거부로 무산

- 5일(화) 열린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에스토니아, 스웨덴, 헝가리, 몰타 등이 법안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반면,

- 폴란드는 OECD 글로벌 세제협상 가운데 'Pillar 2' 최소법인세와 'Pillar 1' 다국적기업 과세(디지털세)가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지침안 합의가 무산

- 폴란드는 최소법인세 도입에는 찬성하나,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디지털 대기업 과세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따라서 두 개의 세제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이와 관련, EU 집행위가 법치주의 우려로 폴란드를 제소, 유럽사법재판소가 폴란드에 시정을 요구하며 위반 기간 동안 매일 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 폴란드에 대한 360억 유로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지급을 EU 집행위가 보유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 폴란드가 최소법인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지적

- 한편,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Pillar 1, Pillar 2 두 개의 신규 글로벌 세제 도입에 대한 EU의 의지를 법안 부속문서에 밝히고 있다며, 동시 발효를 주장하며 지침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폴란드에 입장 전환을 촉구

10 영국, 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러시아 화석 에너지 원자력으로 대체

- 영국 정부는 6일(수) 석탄 수입금지, 금융기관 제재 등 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

- [에너지] 영국은 앞선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이어 2022년 말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방침

- [금융기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모스크바 신용은행(CBM)의 영국내 자산을 동결
- [일부 상품 수출금지] 원유 정제 장비, 철 및 철강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
- [인적 제재]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 인적 제재 대상에 가스업체 노바텍 CEO 등 8명의 러시아 에너지 섹터 올리가르히 추가

● 한편, 영국 정부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분 보충을 위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

- 정부는 6일(수) 발표한 '新에너지 전략'에서, 당초 10년에 1기 원자력 반응기 건설 목표를 매년 1기 건설로 변경,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 중단의 공백을 대체할 계획
- 이를 통해 영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24GW의 전력을 생산, 영국 총 에너지 수요의 약 25%를 충당할 계획. (현재 영국은 2019년 6개 발전소 13개 반응기를 통해 영국 전력 수요의 17%를 생산)
- 또한, 단기적으로 북해 원유 및 가스 탐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셰일 가스 채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
- 다만, 新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로 육상 풍력, 태양광 등 확대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 제기
-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신속한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건설 허가 촉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입안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방침

① EU, 향후 2년간 곡물 수출 30% 확대...글로벌 식량안보 완화 기대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할 곡물 등 글로벌 농산품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U의 향후 2년간 곡물 수출을 30% 가량 확대할 계획

- 전세계 밀, 보리의 약 3분의 1, 옥수수 52%, 해바라기 오일 및 씨앗 50%를 수출하는 글로벌 식량 공급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고조
- 집행위는 5일(화) 발표한 최신 단기 교역전망에서 전쟁으로 인한 농산품 시장의 교란이 향후 글로벌 곡물 및 오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반면,
- 유럽 곡물 및 오일용 씨앗 생산의 안정적 증가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영향과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사료 수요 감소로 EU 곡물 수출 역량도 확대될 전망

* 집행위는 '22~'23년 2년간 동물 사료 수요 1.1% 감소,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 8% 감소를 추산

- 이에 따라, EU 곡물 수출은 직전 5년간 평균 대비 30% 증가, 곡물 수입은 42% 감소할 것으로 추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올해 우크라이나 농가의 파종, 비료살포 및 수확에 상당한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의 농산품 수출 전면 중단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톤의 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EU의 곡물 가격은 지난 수 주 급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2023년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량은 1% 가량 증가할 전망으로,

- 최근 집행위가 휴경지에서의 경작을 허용한 것과 옥수수 가격 급등에 따른 경작 확대 동기 부여 등도 곡물 생산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한편, 곡물과 달리 해바라기 씨앗 등 식용유 공급을 대체할 마땅한 방안이 부족한 점에서 향후 EU의 식품 가공업계의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

- 2021년 전세계 해바라기 오일의 약 3분의 1을 수출한 바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EU 역내 해바라기 오일 및 씨앗 수입이 45% 감소하고,

- 해바라기 오일 등의 가격 급등으로 올리브(생산량 10% 증가) 등 다른 종류의 식용유 추출용 작물의 생산량과 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

- 다만, EU는 작년 안정적 수준의 해바라기 씨앗을 비축하고 있으며, 역내 생산 확대, 중국, 터키 및 카자흐스탄 등지 수입 확대 등으로 공급 교란에 대비 중

⑩ 유럽의회,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 유럽의회는 7일(목)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

- 결의안은 러시아 원유, 석탄, 핵연료,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찬 513, 반 22, 기권 19)로 채택

- 녹색당그룹은 유럽의회가 결의안의 압도적 다수 승인을 통해 독일 등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 반대 회원국의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

- 다만,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는 EU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및 영토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EU의 제재조치 해제 계획 등의 제시도 촉구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경제장관은 7일(목)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촉구한 반면 수입금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

- 르 메르 장관은 원유 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점에서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 석탄 및 원유 수입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 다만,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른 원유 수입금지는 제재의 효과로써 미흡하다고 지적, 수 주 정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
- EU는 5차 제재안으로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나, 독일 등의 반대로 가스와 원유의 수입금지는 무산된 바 있음
-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독일의 원유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에너지 수입금지를 요구, 특히 폴란드는 연내 독자적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를 추진

●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을 추진해 논란

- EU 집행위의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나, 독일 등이 자국의 러시아 석탄 수입중단 계획 등을 고려, 이의 연기를 추진
- 이와 관련, 러시아 에너지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

⑩ 프랑스, 역내 농산품 생산 목표 설정 제안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역내 농산품 생산 목표 설정을 제안

- 줄리앙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7일(목) 러시아가 식량을 전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대응을 위해 EU의 농산품 생산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
- 현재 EU 차원의 농산품 생산 목표는 존재하지 않고, 생산 목표 도입이 복잡한 안건이나,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 대응 관련 EU 역할을 고려,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식량 증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 드노르망디 장관은 모든 식량 증산은 환경적 고려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식량 증산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

- 한편,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부족분 충당을 위해 식품 및 사료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녹지 보호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가축 등 사육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이미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 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
- 또한, EU 역내 식품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는 EU 관계자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EU의 친환경 농업 전환을 좌초시키려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

14 EU 집행위, 벌 등 수분 매개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규제 추진

-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유해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sulfoxaflor)의 옥외 사용금지를 강행할 방침

- 집행위는 작년에 제안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옥외 사용금지 법안의 EU 이사회 승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행입법을 통해 사용금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
-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식품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유해 살충제로부터 수분 매개 곤충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의 지구 및 자손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EU 이사회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살충제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환경단체는 지난 수년에 걸쳐 설폭사플로르 살충제의 유해성이 2018년 사용 금지된 4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살충제*와 유사하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

* '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금지도 당시 EU 이사회 불승인으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규제를 도입

-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설폭사플로르 살충제가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집행위의 사용금지 추진을 비판
- 일부 EU 회원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도 집행위의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사용금지 추진에 비판적 입장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① 미세플라스틱, 노후화 될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 흡착

-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 환경에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수행한 연구에 따라 확인되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햇빛 등에 노출 시 표면입자가 변형되어 유기오염물질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② 유럽집행위원회, REACH 정보요구사항 개정안 채택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REACH 등록서류 요구정보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등록자들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 등록 서류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